PAC, 수은 규제강화

중원화학, 수은 기준치 이상 검출로 관납정지

상수도의 정수처리제로 사용되는 PAC 에서 수은이 검출돼 향후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등포 사업정수장에 납품된 상수도 정수약품(PAC)에서 중금속인 수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됨에 따라 중원화학이 조합으로부터 관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산반토조합은 94년 11월14일 영등포정수장이 중원화학이 납품한 폴리염화알루미늄(PAC)에서 수은이 기준치(0.2ppm)이상 검출됐다고 밝힘에 따라 11월19일 이후 중원화학에 대해 94년 잔여량에 대한 관납 납품에 대해 배정 중단을 통보했다.
황산반토조합은 중원화학에 대해 품질기준강화 및 검사기능강화를 촉구했으며 95년 관납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원화학에 대한 행정조치는 공업진흥청에서 실사가 이루어진 후 95년초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중원화학은 관납을 중단하고 있는데 중원화학의 관납물량 비중은 생산능력(월 600루베)대비 70%를 차지하고 있다.
중원화학은 87년부터 영등포정수장 등에 매년 1000루베 정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94년 9월과 10월에도 영등포정수장과 팔당수원지 · 수자원공사 등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원화학은 영등포정수장의 잔류물량을 즉시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원화학은 KS인증 제조기업으로 PAC과 기타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향후 행정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영등포사업소는 10월12일 중원화학으로부터 PAC 180루베를 구입해 자체 탱크에 보관한후 보건환경원에 검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건환경원으로부터 수은이 기준치(0.2ppm)이상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3가지 항목에 대해 검사한후 적합 · 부적합 여부만을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결과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밝히고 이의가 있으면 업계와 함께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AC은 정수장별로 2~3개월단위로 공급받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화학저널 1995/1/9>